
10 월 독일지역 관광시장동향

■ [동향]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인천 노선 운항 중단

- 트리니티항공은 2026 년 10 월 24 일 운항을 끝으로 프랑크푸르트-인천 노선 운항을 중단함. 이에 따라 독일-한국 직항 노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프랑크푸르트)과 루프트한자(프랑크푸르트·뮌헨) 3 개 항공사 체제로 재편됨.
- 트리니티항공은 2025 년 하계 시즌 주 7 회(매일) 운항하며 국적사 중 가장 많은 운항편을 공급했고, 2025 년 5~8 월 및 2026 년 9 월에는 국적사 중 최다 좌석을 공급함. 2026 년 1~9 월 트리니티항공의 독일발 한국행 공급좌석은 약 3 만 9 천 석으로, 전체 직항 공급좌석의 약 15%, 국적사 공급좌석의 약 3 분의 1 을 차지함.
- 연간 6~7 만 석 규모의 좌석 공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독일 방한객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던 항공사의 이탈로 가격에 민감한 여행객의 방한 수요 위축이 우려되며, 잔여 항공사의 증편 여부 등 항공 공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동향] 갯유어가이드(GetYourGuide) 분석: 정치 관련 여행 체험 수요 증가

- 갯유어가이드에 따르면 2025 년 정치·민주주의 관련 체험

상품 예약이 전년 대비 전 세계적으로 19% 증가했으며, 베를린의 상품은 32% 증가함.

- 베를린의 인기 상품으로는 연방의회 의사당(Reichstag), 연방총리실(Bundeskanzleramt), 정부청사 구역 투어 등이 꼽힘. 해당 분야 인기 목적지 순위는 런던이 1 위이며 부다페스트, 베를린이 뒤를 이음.

■ [동향] 5 개 전문 여행사, 여행사 판매 지원을 위한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출범

- Diamir Erlebnisreisen, For Family Reisen, HX Expeditions, Lernidee Erlebnisreisen, Olimar Reisen 등 5 개 전문 여행상품 기획사가 '네트워크 라이제콤포텐츠(Netzwerk Reisekompetenz)'를 결성함. 여행사의 고가 여행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 전문 지식 공유, 카운터 판매 장벽 해소, 기획사와 여행사간 대면 접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소속 체인이나 제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함. 판매 조직과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 2027 년 1 월 공동 웨비나로 활동을 시작하고, 4 월 5~9 일 독일 5 개 도시(함부르크, 쾰른, 뮌헨, 베를린, 슈투트가르트)에서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임. 향후 공동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판매 포맷 및 박람회 연계 행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 [통계] TATS* 여행사 실적 조사: 9 월 관광 매출 감소 속 크루즈 강세

- TATS 조사 대상 여행사의 9월 총 매출(청구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으며, 1~9월 누적 매출은 전년과 같은 수준임.
- 관광 부문 매출은 9월 6.3%, 1~9월 누적 5.8% 감소함. 반면 크루즈 부문은 9월 5.7% 성장(누적 1.2% 감소)하며 타 부문의 손실을 상쇄하는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함. 크루즈 고객층이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됨.

* TATS(Travel Agency Technologies & Services): 독일 여행사용 회계·정산 소프트웨어 업체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사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실적 통계를 발표함

■ [동향] 유럽의회, 항공 승객권리 개정안 의결: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도 비용 분담

- 유럽의회는 10월 21일, 여행사나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고객도 항공편 취소 시 항공사 직접 예약 고객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함. 앞으로 여행사, 출장관리회사(TMC),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예약한 승객은 항공편 취소 시 예약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됨.
- 예약 단계에서 환불 규정의 차이를 투명하게 고지하는 경우 소기업은 수수료 환불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그 외 여행사에는 전면 적용됨.
- 유럽여행업협회(ECTAA)는 고객 상담, 복잡한 일정 설계, 부가서비스 수배, 운항 차질 시 지원 등 항공편 취소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환불해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 [동향] TUI 분석: 겨울철 장기 체류형 휴가 증가

- TUI 고객 10명 중 1명은 동계 시즌에 3주 이상의 장기 휴가를 계획 중이며, 평균 체류 기간은 28.1박, 1인당 평균 비용은 2,163 유로로 집계됨. 성수기는 1월부터 시작되며, 장기 체류 여행객은 일반 겨울 휴가객보다 평균 약 3주 일찍 예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객의 약 80%가 60세 이상이며 대부분 부부 및 1인 여행객임.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워케이션(workation) 형태로 겨울 휴가를 즐기는 젊은 직장인도 늘고 있음.
- 카나리아 제도(푸에르테벤투라, 그란카나리아, 테네리페)가 예약의 45%를 차지하며 최대 인기 지역으로 꼽혔고, 튀니지가 신흥 인기 목적지로 부상함. 장거리 목적지로는 도미니카공화국, 몰디브, 태국, 카보베르데 등이 성장세를 보임

■ [동향] 에어투어스(Airtours) 2026/27 동계 시즌: 고급 여행객의 아시아 선호 뚜렷

- 에어투어스 고객 2명 중 1명이 겨울철 아시아를 방문하며, 몰디브, 일본, 부탄, 태국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 전체 고객의 70% 이상이 겨울철 장거리 여행을 예약함.
- 유럽·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테네리페가 1위를 차지했고 이집트, 독일, 포르투갈이 뒤를 이음. 이번 동계 시즌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곳은 스페인 본토, 마요르카, 키프로스임.
- 장거리 목적지 중에서는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의 성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동계 프로그램에 신규 호텔을 추가한 영향으로 분석됨.

■ [분석] 국제유가(브렌트유) 변동과 독일 방한객 추이

-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이어져 장거리 여행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됨. 이에 201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북해산 브렌트유 월평균 가격과 독일 방한객 수의 관계를 분석함(코로나 19 영향 기간인 2020년 2월~2022년 12월 제외).
- 분석 결과, 예상과 달리 유가와 독일 방한객 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계절 요인과 환율을 함께 고려하면 유가의 영향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류할증료 반영 시차를 감안해 1~3개월 시차를 두고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는 같았음. 반면 원/유로 환율은 방한객 증감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 독일 방한 수요는 유가보다 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로 보면, 유가가 전년 대비 31% 상승한 2018년에도 방한객은 5.4% 증가했고, 유가가 14% 하락한 2025년의 방한객 증가율(11.9%)도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구분	2017	2018	2019	2024	2025
브렌트유 연평균(달러/배럴)	54.25	71.06	64.36	80.53	69.10
유가 증감률	+24.6%	+31.0%	-9.4%	-2.4%	-14.2%
독일 방한객(명)	109,860	115,789	120,730	157,185	175,836
방한객 증감률	-0.4%	+5.4%	+4.3%	+18.4%	+11.9%

- 유가가 정점에 달한 2026년 3~5월에는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59.5% 상승(68.44 달러 → 109.19 달러)했는데, 같은 기간 방한객도 15.5% 증가(61,432 명 → 70,976 명)함. 유가가 다시 급등한 9월(전년 동월 대비 +67.9%)에도 방한객은 12.0%

증가함. 3 월(25,649 명), 8 월(18,516 명), 9 월(21,632 명)은 모두 2016 년 이후 같은 달 중 최고치를 기록함.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브렌트유(달러/배럴)	66.60	70.89	103.13	117.29	107.14	85.40	83.76	91.08	114.16
유가 전년 동월 대비	-16.0%	-6.0%	+41.8%	+72.2%	+66.2%	+19.5%	+17.9%	+34.2%	+67.9%
독일 방한객(명)	8,394	8,291	25,649	25,035	20,292	12,742	13,541	18,516	21,632
방한객 전년 동월 대비	+38.7%	+9.1%	+39.9%	-10.1%*	+33.1%	+6.9%	+19.4%	+12.1%	+12.0%

* 부활절 시기 차이(2025 년 4 월 20 일, 2026 년 4 월 5 일)로 수요가 3 월로 분산된 영향이며, 3~4 월 합계로는 9.8% 증가

- 이상의 분석 결과, 유가는 독일인의 방한 여행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6 년 상반기 독일-한국 직항 공급좌석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으며, 특히 유가가 급등한 3 월 이후 감소폭이 확대됨.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항공사의 운항 조정 및 항공권 가격 상승을 통해 방한 수요에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고자료) : 관광 전문지 보고서 및 언론 기사, 자체조사 등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get-your-guide-analyse-darum-boomen-politische-reiseerlebnisse-264977>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bekanntnis-fuer-reisebueros-fuenf-spezialisten-schmieden-neueallianz-fuer-den-counter-265226>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tats-reisebuero-spiegel-kreuzfahrten-stabiler-anker-am-counter-265340>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eu-parlament-beschliesst-reform-fluggastrechte--streit-um-reisebuero-gebuehren-265420>

<https://www.fvw.de/touristik/vertrieb/tui-auswertung-langzeiturlaub-im-winter-liegt-im-trend-265482>

<https://www.fvw.de/touristik/veranstalter/airtours-winter-202627-wohin-luxusgaeste-im-winter-besonders-gern-reisen-265487>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Europe Brent Spot Price FOB(일일 증가 월평균), 한국관광데이터랩 방한 외래관광객 통계